

지역문화축제 '포교의 신대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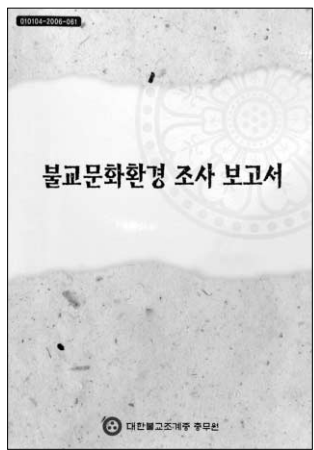
조계종 '불교문화환경 조사보고서' 펴내 불교 프로그램 접목 · 사찰축제 확대 등 제시

지역문화 축제와 불교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는 불교는 지역 유무형 문화재는 물론 생활문화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화의 보물 창고'이며 불교의 입장에서 보는 지역문화 축제는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포교 마당을 넓히는 적절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문화관광부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문화 축제를 조사한 '시도별 축제개최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601개 축제 중 34개(5.7%)가 불교와 연관을 갖는 축제로 밝혀졌다. 지역문화축제는 포교의 신대륙인 셈이다.

전국축제 중 불교연관 5.7% 지역문화 축제의 문화적 위상과 사회적 파급력이 앞으로 점차 증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그렇다면 불교계가 실시하고 있는 불교문화 축제를 지역문화 축제의 핵심으로 부상시킬 방안은 없을까?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탁연기) 전국의 지역문화 축제와 불교문화 축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문화 축제의 불교적 활용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해 주목된다. 문화부는 최근 내놓은 <불교문화환경 조사 보고서>를 통해 전국의 지역문화 축제와 불교문화 축제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교계가 개최하는 불교문화 축제는 98건(2004년 조사)이다. 보고서는 이들



축제 가운데 '월정사 불교문화축제' 등 대표적인 축제들을 일일이 살펴본 과정과 특징 개선점 등을 상세히 정리했다. 별도로 조사한 산사음악회는 31건(2004년 조사)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산사음악회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으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여서 100여 곳으로 추산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단 · 교구본사 '역할' 중요

문화부가 집계한 2005년 시도별 지역문화 축제에서 불교 관련 축제는 전남지역이 대종사 단종 축제 등 9건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팔만대장경 축제 등 5건, 충북이 충주 직지축제 등 5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서울과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지역문화 축제에서 불교관련 축제는 단 한건도 없었다. 부산의 경우 범어사 개산문화대제전 1건이 '불교

제일도시'의 체면을 지켜 주었다. 보고서는 이들 자료를 종합 분석해 지역문화 축제를 통한 불교 위상 제고 및 포교효과 증대를 위한 선결 과제 4가지를 제시했다.

△지역축제 현황 및 불교문화 행사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지속 △교구본사 별로 해당 지역문화 축제에서 활용 가능한 불교문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불교와 연관성이 높은 지역문화 축제의 문화관광부 지정축제 신청 시 중단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불교문화 축제의 경우 중단 차원의 전문적인 자문과 교육 등 지원 필요 등이다.

지역적인 지원이 관건

이들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찰 등 불교문화 축제의 주관자들에게 대한 전문성과 기획력, 행정, 홍보,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화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 지정사업'을 벤치마킹 해 불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편 <불교문화환경 조사 보고서>는 사찰문화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도 함께 소개했다. 이 조사는 조계종 사찰의 도서관 미술관 공예장 등의 보유실태와 활용 현황은 물론 각종 문화모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문화활동도 조사해 불교계와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본지 578호 23면 참조)

임연태 기자

행원문화상 박상준 · 한기늬씨 선정

행원문화재단, '한글대장경 번역' · '주도적 예술세계' 인정

제15회 행원문화상 역경상에 박상준씨가, 예술상에 한기늬씨가 선정됐다.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주영운(은)은 제15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7월 28일 발표했다.

역경상 수상자 박상준씨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과정 수료하고 중앙승가대학교 불전국역원과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을 수료했다. 오랫동안 한글대장경 번역에 투신해 역경과 연구활동에 매진해 왔다. <고려국신조대장경 정벌록> <중도가사실> <아비담비바사론> <금강경언해> 등 다수의 경전을 번역했다.

윤문사 강주 명성 스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아온 예술상 수상자



박상준씨



한기늬씨

한기늬씨는 이탈리아 국립 카라라미술대학과 인도국립 타골대학원 조각과를 졸업했다. 전통적인 불상 조각과는 달리 치열한 '구도'의 이미지로서 불교적 주제를 현대적 해석과 새로운 표현방식으로 교계 조각의 새로운 형태를 개척하는 등 불교미술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왔다. 국내 뿐 아니라 이탈리아 인도 독일 등 해외에서 25회에 이르는 개인전과 100여회의 단체전 등으로 한국 불교 예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9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안암동 사회복지업인 승가원 강당에서 열린다.

김지연 기자

지관 원장 공동대표의장 선출

종지협, 10월 종교문화축제 개최 등 논의

7대 종교 대표자 모임인 한국종교 지도자협의회는 7월 27일 서울 삼청각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 공동대표의장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선출했다.

그동안 지관 스님은 제6대 회장이었던 법장스님의 잔여임기를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2년간 제7대 공동대표의장직을 맡게 됐다. 감사에는 정연택 한기총사무총장, 김재만 민족종교협의회 사무총장이 유임됐다.

이날 새 의장으로 추대된 후 지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저립된

종지협 기금 5100만 원에 3000만 원을 보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5년도 사업 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사업 계획(안) 승인의 건 △임원선출의 건 공동대표 및 감사선출의 건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 올해 주요 사업으로 10월 14일 또는 21일 양일 가운데 하루를 택해 남산 한옥마을이나 시청광장 등에서 제11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교류사업 지속돼야" 대국민 호소문 발표

종지협 소속 7대종교 대표들은 7월 27일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엄중한 한반도 정세로 인해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시련과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가 간 호혜와 평등의 원칙 하에 평화적인 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종지협은 이번 호소문에서 "인도

적인 남북사업 및 남북간교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하고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국민단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가와 사회지도자들도 대화협력을 통한 상생의 지도력을 발휘 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해 종교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조용수 기자

"입장료 폐지 불교계 입장 찬성"

박화강 신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밝혀

이병인 교수 등 민간위원 위촉

김재규 前 이사장에 이어 박화강 신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확인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박화강 이사장은 7월 26일 오후 2시 신임인사차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공원입장료 폐지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박 이사장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문제와 관련해 "불교계의 입장을 적극 찬성한다"며 "입장료를 폐지해 국립공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회와 환경부 등 관련단체 대부분이 입장료 폐지에 찬성을 하고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관련 주요정책을 조정 협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이규용, 환경부 차관)의 새 민간위원으로 밀양대 이병인 교수(본지 논설위원) 등 7명이 7월 20일자로 선정됐다.

새 민간위원으로는 이병인 교수를 비롯해 대구대 권태호, 성신여대 강현선, 강원대 정연숙 교수, 생명과학연구원 조승현 소장, 삼성경제연구소 전영욱 수석연구원, 국립공원연구원 손재용 공동대표 등 7명을 새로 선임했다. 임기는 2년.

국립공원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 당원적 13명,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국립공원의 지정과 해제, 공원 내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조용수 기자

"항상 깨어있어야"

지관 원장 강재섭 대표에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당부했다(사진).

지관 스님은 7월 25일 예방한 강재섭 대표가 조언을 구하자 "한나라당은 전통이 있고 경험 많은 의원들이 있어 잘 할 것이지만 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된다. 늘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관 스님은 "잠성하는 사람이 화두를 들 때 혼침(昏沈)과 산란(散亂)을 경계하듯 늘 성성적



(惺惺寂寂)한, 깨어있는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고구려, 신라, 백제가 망한 것도 결국 지도자가 부패해서 그런 것이다. 문제는 결국 육심에서 나오는데 육심을 거둬야 하므로 어렵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남동우 기자

한강시민사업소 고발

방생협회, 업무방해 등 이유로

서울 천호대교 인근 한강 상류에서 수상법당을 운영하고 있는 조계종 방생협회(회장 이경호)가 "서울시 산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이하 한강사업소) 前 소장 권중수(현 종로구 부구청장)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7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용수 기자

"계약 아직 유효하다"

에스에드컴, 기자회견서 주장

중단된 조계종 불교역사중앙박물관 공사 새 인테리어 사업자 선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시공업체였던 에스에드컴이 계약 유효를 주장했다.

공동시공업체라고 주장하는 퍼스디자인의 이규현 전무와 에스에드컴 김환곤 이사는 7월 26일 "처음 계약된 계약서 금액은 69억 331만 원(부가세포함)이었으며 계약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귀책사유가 갑(총무원)에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약된 금액 그대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계종은 이미 에스에드컴이 성실관리사무와 계약내용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9일 신규사업자 인테리어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조용수 기자

세계평화 3방안 제시!!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전 세계인 여러분!
인류의 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종교분쟁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9.11 테러와 보복전쟁이 난 후로 자살 폭탄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1천4백년을 이어온 앙숙관계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그대로 두면 영원히 계속되며 세계평화를 항상 위협하고 중동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테러 리스트들은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하니 이런 지구촌의 큰 위협을 방지해도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종교분쟁을 없애야 합니다. 이 종교분쟁의 핵심이 무엇이나 할 때 서로가 갖는 창조주 유일신 사상의 충돌이 그 원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양쪽 종교가 세계평화를 외칠

자각이 있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원인의 해결을 양측은 수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담 예수님이나 모함마드님도 오늘날 태어났다면 종교전쟁이 수반되는 유일신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는, 미국 등 몇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가지려 하므로 핵 확산 우려가 있고 통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UN기구의 관리하에 두기를 제의합니다. 그러면서 평화유요로만 세계가 함께 쓰면 각 국가들이 가질 필요가 없어지고 가진 나라도 포기한 것이 되어 세계평화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세계의 무기 경쟁을 저지하고 지금 또 지역의 핵과 미사일 사건으로 동아시아의 치솟는 미사일 경쟁까지 잠재울 수 있습니다.

다음 셋째로는, 한국에 "세계평화 중심센터"를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또다시 6.25와 같은 참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동북아의 화약고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리적 난점을 보완하고 국제분쟁의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국민의 도덕적 의식수준을 높이고 세계의 교육장이 되는 등 좋은 점이 많으므로 반드시 세계평화 중심센터를 이곳에 건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건립방안도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인류화합 세계평화를 위한 계몽 강연** 기독교(천주교 · 개신교)와 이슬람교의 유일신 충돌만 분쟁원인이 아니라 성경 교리에도 타종교에의 침략적 분쟁요소가 많은 것도 시정대응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인은 항상 (칼)을 차는 것이 침략자임을 나타낸다고, 기독교 역시 교주가 신자에게 (검)을 주어 싸우게 하러 왔다(마태복음 10장 34절)는 말씀 자체가 분쟁원인이나 종교간 화합 세계평화가 있을 까닭이 없으므로 이것까지 시정치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계몽강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계에서 이를 부인하신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얽힌 교리 비판 강연을 인내하여 다 들으신 후 토론하기를 제의하오니 세상이 다 알도록 신문 TV 등 큰 광고를 내시고 공개장소에 보안만 완전하면 기꺼히 가 드립니다. 그러나 무반응시 긍정으로 간주)**

● 宇宙의 新淨土法門

1. 정토삼부경의 극락세계 2. 극락세계와 천국 설법 (상기 강연이나 설법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가 드립니다) 又, 日本國の方にも要請があれば其處に趣いて極樂世界と天國といふ題の日本語説法をして上げます.

● 세계평화 정토회 가입안내

가입비 무료. 아래 전화로 성명, 주소,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됨. 승 · 속과 종파 초월. 집회는 추후 개별 통지.

● **본회의 목적** : 세계평화 중심센터를 건립하여 항상 세계평화 일류복지를 위한 일을 계속하려함. (원을 세운지 30여년 못해서 한탄)

● **세계평화중심센터 건립을 국내외 독지가께서 도와주십시오** (신문광고 및 일반성금 : 송금하시고 전화 주십시오) 농협 811013-51-044560 사명정사(세계평화 정토회)

세계를 지배 압도하는 가공한 巨大 기독교계에 비판강연과 함께 토론을 신청하는 法天스님!
자아! 기독교계에서는 어찌 나올 것인가? 흥미진진!! 호호탕탕!!
기독교의 흥망?? 覺醒?? 근본개혁?? 여부가 달려있는 이나라 아니 세계 미증유의 대실전!!
기대하시라!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주목한다!!
(우주평화) 정토회 일동

世界平和 淨土會 代表 法天 鶴山 合掌

● 서울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2-67 402호 ● 접수 : ☎ 02)3273-0841 / 팩스 02)3273-0840 ● 중요문의 011-9230-2192